

미래 낙농인의 요람, 우리는 이렇게 양성한다



김종덕
천안연암대학 축산계열 교수

본고에서는 천안연암대학의 축산계열(2년제)과 축산학과(4년제)가 축산후계자 특히, 낙농후계자를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실무형 최고 낙농후계자를 어떻게 육성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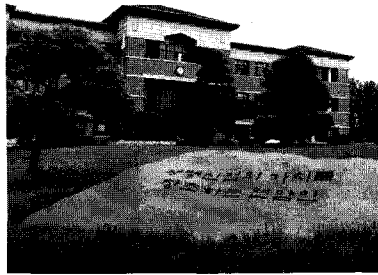
최근 천안연암대학은 비전2010의 “글로벌 실무형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등 천안연암대학”에서 비전2020의 “실무형 인재양성의 창업 특성화대학”으로 전환하여 실무교육에 역점을 두고 재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축산계열은 “농촌에 돌아갈 젊은이를 양성” 한다는 대학의 창학이념 및 비전과 합치되는 축산업 인력양성학과로 학과 비전을 “실무형 최고 축산전문가 양성”으로 축산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축산농가수를 기준으로 볼 때, 한우농가는 1990년 62만농가에서 현재 17만농가로, 낙농가는 33,000농가에서 6,400농가로 축산업 종사 인구비율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현재 연간 농업후계인력이 5,000명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농업계 대학교에서는 농업후계인력 양성보다는 대학졸업장 취득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계열은 타 농업계 대학교에서 동물자원관련학과와 명칭으로 모집정원 30명 규모의 신입생을 모집하지만 천안연암대학에서는 농촌에 정착할 영농희망자 및 승계농 후계자들을 100명을 전문학사학위 과정으로, 현재 축산에 종사하는 영농축산인을 대상으로 40명의 일반학사과정으로 모집하여 매년 총 140여명의 영농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캠퍼스 전경



캠퍼스 전경



부속목장의 축사 내외부

축산계열에서 지난 36년간 배출한 축산인력은 약 5,000명 ('70년대에는 200명 정원) 정도로서 이중에서 현재 축산영농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2,500명 수준으로서 우리나라 축산인력의 2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 수준의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5,000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지만, 약 2,500명 수준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농과대학, 정부, 축산업계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에 기여하여야 한다. 천안연암대학 축산계열만이 이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지역사회와 관련업계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농업생산액은 38조원 규모이며, 이중 축산업의 생산규모는 13조6천억으로 농업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리고 낙농업의 규모는 1조6천억원으로 축산의 12%이며, 전체농업의 4.2%로 생산규모 면에서 농업의 4위로 성장하였으나, 축산 특히 낙농후계인력 양성은 천안연암대학과 한국농수산대학을 제외하고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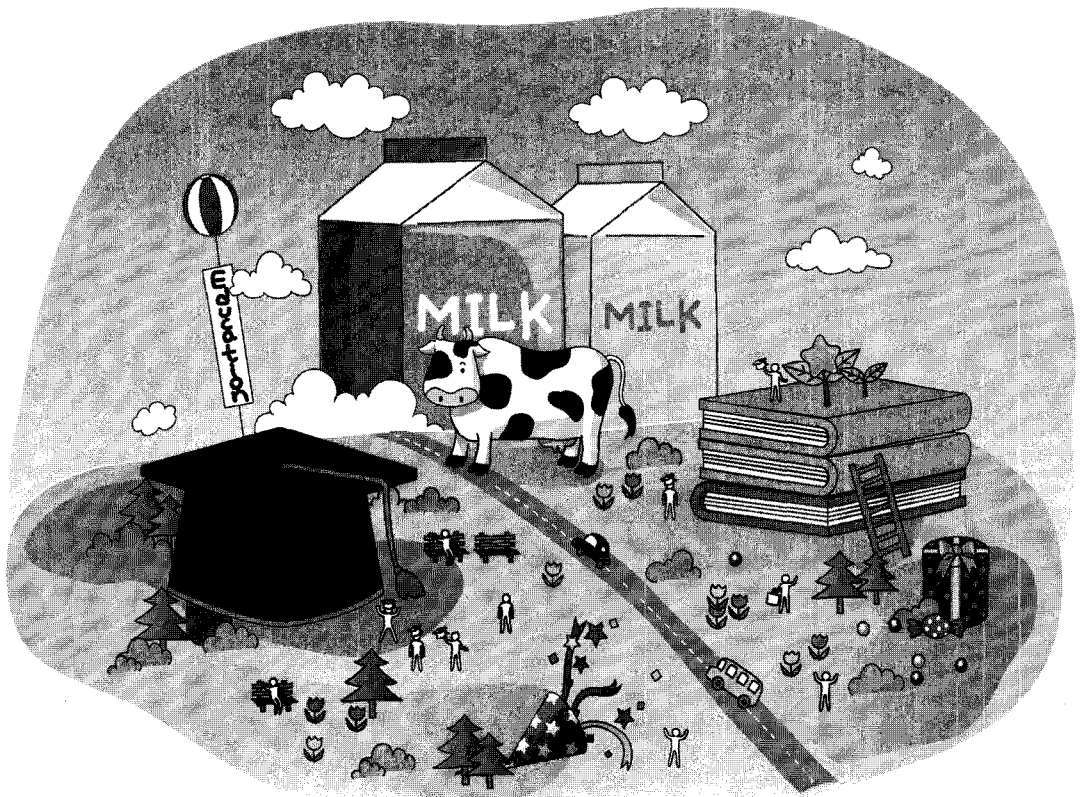
그리고 국내 대학 가운데 농촌에서 영농할 축산인력양성을 위해 최첨단 축산농장을 설치하여 실습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대학은 본 대학 1개뿐

이며, 천안연암대학 실습목장에는 젖소 70두, 한우 200두, 돼지 3,000두, 양계 6만수 등을 사육하며,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하여 현장과 밀착된 실무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본 대학에서는 매년 축산기술교육을 위하여 농업마이스터 교육생 등을 2년간 기간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중국 축산인력 양성을 위해 평생교육 과정으로 매년 200명을 2주 과정으로 3년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재학생들을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아 매년 100명의 후계영농인 양성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전국대표실습농장으로 지정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축산업 인력양성 분야에서 전국 최고로 특성화된 학과로 인정받았으며, 지난 35년간 전국 농업계 대학 중에서 영농정착률이 45%로 가장 높았다.

또한 비정규 교과과정으로 귀농교육생 전국 최다 2,443명 배출, 4년간 정부 창업농 약 4,000명 육성 교육을 총괄하고 있다.



미래농업 짚어질 후계자 육성, 어떤 교육이 있나



인공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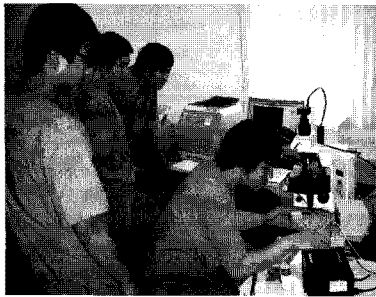
사일리지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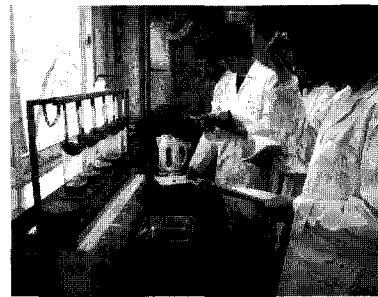
착유실습



발굽삭제



정자 활력 검사



사료분석

그리고 2010년에는 교과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대표브랜드 학과로 지정 받아 영농정착 및 승계농업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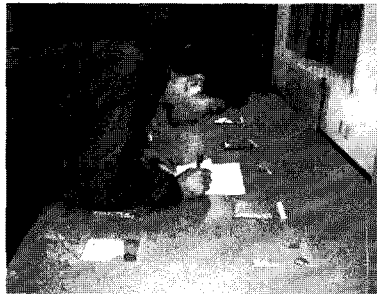
천안연암대학 축산계열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축산분야별 글로벌 실무형 최고 경영자 및 축산 산업분야에 요구되는 축산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학협동을 통해 축산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본 대학에서 설치한 축산관련 부속기관으로는 축산기술훈련센터, 양돈유전자원센터, 유가공기술센터, 종합분석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축산관련 기술 연구 및 현장애로기술 기술개발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기술자문을 실시함으로써 국내 축산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선형심사



CMT 검사



목초종자 및 초종 식별



사일리지 품질 평가

축산계열은 3개의 전공 즉, 축산전공, 낙농한우전공 및 양돈양계전공으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으며, 축산전공은 진학과 축산업계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전공으로 이론과 실무를 공부한다. 반면 낙농한우전공은 고품질의 우유생산과 차별화된 한우의 고급육 생산기술을 교육하여 낙농과 한우 생산의 최고전문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낙농한우전공의 교과목은 젖소의 사양관리, 번식, 개량, 영양, 사료, 축산전산, 질병, 유제품 가공 분야까지 다양한 과목을 공부한다. 낙농관련 실습으로는 젖소 선형심사 및 BCS 검사, 착유 및 CMT test, 인공수정, 발굽 삭제, 사일리지 제조, 사료작물 생산 등을 현장에서 수행한다.

특히 본 대학은 축산학과 졸업인증제도로 매년 연암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암기사는 축종별과 대기축, 양돈 및 양계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습시험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실무에 능한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선형심사, 젖소의 BCS(body condition score) 관찰, 소 보정 및 경정맥 주사, 우유 CMT 검사, 목초 종자 및 초종 식별, 사료형태 및 원료사료 식별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13년동안 전공동아리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전공동아리를 활



초음파진단



소 보정

성화시키고 있다. 특히 축산계열의 전공동아리는 낙농연구회, 한우연구회, 양돈연구회 및 양계연구회가 있으며, 특히 낙농연구회는 매년 상위에 입상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낙농연구회가 “젖소 육성우 목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17개의 전공동아리 중에서 3위에 입상하였다.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영농정착교육과정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으로 2009년부터 천안연암대학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교 재학생에게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전문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하여 미래 축산인재 개발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영농정착교육은 5개의 트랙으로 운영되며 트랙은 낙농, 한우, 중소가축, 원예, 조정 트랙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인원은 각 트랙별 한 학년 15명으로 소수 정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운영을 하고 있다. 매년 학생들의 요구조사를 반영하여 교과목 개설을 하며 올해에는 특화교육 교과목은 소수정란이식실습, 인공수정위크숍, 식육처리실습, 고급육생산 등의 집중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본 과정의 장점으로서는 해외연수기회 부여, 학교 내 장학금 선발 가산점, 창업후계농교육시 가산점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처럼 본 대학은 이론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현장 실습으로 졸업과 동시에 현장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 우리의 농가는 젊은 일꾼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인력을 본 대학에서 키워내고 있으며 농가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다.

실무형 최고 축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본 대학에서 해마다 꾸준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고, 교육을 받아 졸업 후 축산농가로 돌아가서 꿈을 펼치고 있는 젊은이들이 계속 있는 한 우리 낙농업의 미래는 밝고 희망찬 내일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